

여는 말씀

짙어가는 산빛 내음으로 봄이 깊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절기입니다.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 여러분과 함께 유서 깊은 마곡의 자락에서 봄의 향연을 누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향후 종단의 백년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법과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종단 공동체의 틀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래 ‘포교, 역경, 도제양성’의 기치를 걸고 불교를 현대화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 왔지만 종도들의 요청과 국민들의 기대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위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온당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불교공동체로서 우리 종단이 걸어온 역사와 현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힘겹게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하며 종단 내에서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합을 반복해 오며 종단의 정체성을 정립해 왔습니다. 현실적 종단 운영의 경험은 이제 5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내 문중, 내 사찰, 내 교구의 이해를 먼저 챙겨오다 보니, 단일종단으로의 집중력과 일체감은 아직 미흡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50여 년 간 중앙종무기관의 활동이 사회적 역할이나 정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종도들의 화합과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고 소통하여 안정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29대~32대 집행부 기간 동안 종헌 종법 종령 등 제도의 개선은 단 25건에 불과합니다. 분규의 상흔을 지우고 화합을 이루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종회 내 갈등과 대립으로 종단 차원의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반면 33대와 34대 집행부 8년간의 종법령 제개정 수는 144건입니다. 거의 6배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 종단발전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가능했음을 확인하는 방증입니다. 아울러, 그간 종단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승려복지제도 시행, 법인관리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 토지처분금을 활용한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해외특별교구의 출범, 논산 군법당 건립, 각종 해외 구호사업의 전개와 복지시설

건립 등,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종단 차원의 대형 불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화합과 안정을 통한 신심과 원력의 기반 위에서 종도 모두가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은 더욱 근본적이며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스님과 신도, 사찰과 관련한 근본 문제이며 종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단 각종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출가자가 156명으로 연간 출가자 총인원 20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출가자 평균연령 40대, 나아가 전체 승려 중 50대 이상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가인원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도들의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여성 불자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매년 3만 명의 가까운 신도들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포교 열세 지역에서는 신도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영남 위주로 소규모 사찰사암 중심이며 인천을 비롯한 대전, 제주와 신도시들에서는 아예 사찰 건립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사찰의 위기와 공동화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종교인 천주교와 원불교가 성당과 교당의 통폐합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듯이 사찰도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의 존재 이유는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소통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중앙과 지역교구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단 공동체 속에서 안락을 느끼면서 형성되는 일체감 속에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구와 사찰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 포교, 복지를 교구단위로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교구중심제와 교구 재정집중을 제안했지만 공동체 전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종단 각 교구의 상황은 시대와 현실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역시 대부분의 재정을 분담금에 의지하다 보니 획기적인 재정 확충과 긴요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신도시 포교, 각계각층의 불자 관리, 성보 문화재의 전승과 보전, 각종 사회사업과 복지사업들을 온전하게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종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엄중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 기본인 스님과 신도, 사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운영을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나아가 종단운영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여 백년대계본부를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도 안정적으로 종단의 미래를 고민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안할 단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소임자 스님들 모두가 함께 오늘과 같은 대중공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미래를 일구어 나갑시다. 여기에 백년대계본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교원장스님께서 종단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한 경청과 탁마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2017)년 4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